

동금당(東金堂)

동조약사여래좌상(산스크리트어: 바이샤즈야구루)

중요문화재

약사여래는 현세의 동쪽 저 멀리에 있다고 여겨지는 동방 정유리광세계에 살고 있으며 그 이름대로 ‘의술을 관장하는 부처’로서 질병의 치료나 장수와 특히 관련이 깊습니다. 또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존재로도 여겨집니다.

이 상은 동금당의 본존으로 결가부좌 자세로 앉아 있으며, 옷자락은 높은 직사각형 모양의 대좌 끝에서부터 흐르는 듯이 드리워져 있습니다. 왼손은 왼쪽 무릎에 올려 두고 약병을 들고 있습니다. 오른손은 팔꿈치를 구부려 손가락을 위로 한 상태에서 손바닥을 바깥쪽으로 향하게 하여 두려움을 없애 준다는 의미의 시무외인이라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.

현재의 상은 1415년에 만들어진 동계불상으로 점토 원형을 사용하는 주조 기술로 제작되었습니다. 1411년의 화재로 이전의 상(이 상 자체가 나라 시대 초대 불상의 대체)이 소실되었기 때문에 이를 대신해 만들어진 후, 동금당의 본존으로 안치된 것입니다.

1937년 동금당의 해체 수리 과정에서 본존의 대좌 안에서 동조불두가 발견되었습니다. 이 이전의 상은 685년에 주조된 상으로 아스카 지방의 야마다테라 절에서 고후쿠지 절로 옮겨진 것이었습니다. 발견된 불두는 하쿠호 시대(7세기 후반~8세기 초) 불상의 훌륭한 예로서 국보로 지정되었으며, 현재는 고후쿠지 절 국보관에 안치되어 있습니다.